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

---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COVID-19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희망을 향해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KOIMA 회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차분하게 협회 100년을 준비하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먼저 지난 2년여 동안 경영진단을 통해 사무국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작년 말에는 회원사 지원과 협회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가 되도록 조직개편도 단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회를 만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회원 분들께서 너무 분열적이고 소모적이며 고비용 구조라고 우려하시는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선거를 소위 축제의 장이라 말하였지만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회원사들의 분열과 탈퇴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세대확장을 위한 젊고 능력있는 신입회원들의 유치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 협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국제통상의 첨병 역할을 하는 우리 협회가 세련되고 모범적인 선거 문화를 선도할 때가 됐으며,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회장 선거를 하기 전에 추대위원회를 통해 회장 추대를 먼저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현 회장이 차기 회장을 내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

키기 위해서 협회 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10명의 추대위원들을 여러 조직에서 선임하고, 회장추대 결정도 위원 만장일치로 하도록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가 안되면 현재처럼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다만 선거도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차별하게 후보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협회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고, 협조와 화합하는 협회로 그리고 대한민국 통상을 선도하는 선진협회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수출 대한민국에서 통상마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오히려 선진국의 문턱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갈수록 통상 불균형에 대한 각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에서는 우리 협회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협회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무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KOIMA, 희망 KOIMA'

우리협회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시대적 소명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입협회 회장 홍광희 배상